

돌아 본 2009

1 광주·전남 飛上 발판 마련

호남고속철 미래 달리고 U대회 유치로 희망 쫓다

2009년은 호남고속철도(KTX) 광주~오송 간 공사가 시작되고 영산강살리기 사업과 J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등 광주·전남 지역 경제발전의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특히 광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가 유치되고 2012여수박람회 부지 조성 기공식이 열리는 등 광주·전남이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23일, 재도전에 나선 2015 U대회 개최를 확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도약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2015 U대회를 계기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 경기대회 개최 노하우를 축적, 향후 또 다른 메이저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총복 오송~광주 간 공사가 지난 4월 착공돼 본격적인 KTX 시대가 열리게 됐다. 광주~오송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KTX가 완공되면 서울~광주까지 1시간 41분이면 주파가 가능해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된다.

전남에선 지난날 22일 영산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열리고,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승촌보와 죽산보 등 영산강에 새로 들어설 2개의 보의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등 호남의 젓줄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조절장 증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등을 목표로 진행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남 서남권을 국제적인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도 6개 사업지구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구성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지난 4일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본궤도에 올라섰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구성지구 개발계획이 지정·고시되면 즉시 실시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도 지난달 30일 박람회 개최지인 여수신항에서 기공식이 열리는 등 박람회 성

공개회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여수 신항 일대 총 174만㎡의 부지에는 국제관과 주제관, Big-O, 기업관 등 총 13개의 전시관과 함께 2천10세대 규모의 숙박시설인 엑스포 타운 등 다양한 박람회 행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5+2 광역경제권' 권역 재조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편성과정에서 영남권에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 권역을 배정한 반면 호남권은 광주·전남·전북을 묶어 한 개 권역으로 배정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민의 반발을 샀다.

최근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조성하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나중에 조성되고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입주절차가 차질될까 우려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사육부지 축소와 부지 조성원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전에 예정된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농산물유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잿더미로 변한 해돋이 명소

20일 새벽,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한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전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 날이 밝으면서 폐허로 변한 향일암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불 탄 대웅전 앞에서 소방관들이 잔 불을 제거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향일암 큰 불

대웅전 등 3동 전소...6억 피해

국내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여수 향일암(전남도문화재 자료 40호)에서 불이나 대웅전을 비롯한 암자 주요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

<관련기사 6면>

20일 새벽 0시24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대웅전에 화재가 발생, 대웅전(51㎡)과 중무실(27㎡), 종각(16.5㎡)

등 사찰 건물 8동 가운데 3동이 전소됐다. 이 불은 소방서 추산 5억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불은 지난 1984년 4월 화순 쌍봉사 대웅전이 신도들의 부주의로 소실된 지 25년 만에 발생한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문화재 화재 사건으로

남게됐다.

불이 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와 주민 등 250여명이 투입돼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암자가 산 중턱에 있는데다 입구에서 암자까지 1km에 이르는 진입로도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향일암과 소방관서가 최소 14~40km 떨어져 있어 화재 신고를 접수받은 뒤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다.

이 같은 이유로 향일암에는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거나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적이었지만, 소화기 외에는 이렇다할 화재진압 장비가 향일암에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가 난 암자 건물에 촛불이나 난로 등이 켜져 있지 않은 점, 과거에도 특정 종교 신도가 대웅전에 난동을 부린 점 등으로 미뤄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누적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암자는 올 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재점검을 받았으나,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예산 연내 배정 사실상 무산

여야 극한 대치에 재정공백 우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기회복을 이여가기 위한 정부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광주·전남 지역 서민,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한 민생예산 조기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연말연초 '재정공백' 사태도 우려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통과 이후 5

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여야 대치 국면을 감안하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이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비상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실업 대책으로

추진하는 '청년인턴제',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조기 시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내년말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SOC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집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도는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오후부터 추위 풀린다

21일 낮부터 눈이 그친 뒤 점차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탄절인 25일은 눈이나 비가 전량 7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광주·

전남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다가 낮부터 짙은 것"이라고 20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5cm.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7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겠다.

기상청은 21일 오전까지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져 22일 새벽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25일 전까지는 구름만 다소 낄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

대학선택도 전략이다

자기개발 전략포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신청서 | 2009. 12. 1(화) ~ 2010. 1. 8(수)
면담서 | 2009. 12. 1(화) ~ 2010. 1. 23(수)

입학안내: 062)973-51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